

圖書館 相互協力에 관한 試論的考察

金 世 翊*

〈目 次〉

1. 緒 言
 - 가.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나. 研究의 對象과 方法
2. 先行研究 및 制度의 探索
 - 가. 圖書館活動의 一體화된 統合傾向
 - 나. 先行制度의 分析
 - 다. 나쇼날·플랜에 대한 展望
3. 圖書館奉仕의 一體化를 위한 土着化 方案
 - 가. 一體化의 制度化
 - 나. 一體化活動의 內容
 - 다. 國立中央圖書館의 發展的 役割
4. 結 論

1. 緒 言

가.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圖書館은 專門家와 一般市民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겹(gap)에 다리(橋)를 놓아줄 教育·科學·文化上的 모든 서어비스 向上에 責任을 져야한다.¹⁾ 科學과 學問의 世界에 巨大한 躍進이 이루어져가는 時代에는 知識人이 民衆과의 接觸을 喪失하게 되어, 民衆은 그들의 文化的 指導者들이 이룩해가는 것에 對하여 無智하게 되는 危險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겹에 다리를 놓아주고자 마련한 文叟人の 그 많은 서어비스 중에서 圖書館이 寄與하는 各種의 서어비스만큼 廣汎한 可能性을 담고 있는 것이 없으며, 또 發展을 必要로 하는것은 그리 흔치않

*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1) Mc Colvin, Lionel Roy: Public Library Extension, Unesco Public Library

Manual 2. Unesco, 1950의 序文에서 밝힘.

다. 多少나마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나, 社會生活 속에서 自己의 役割을 完全하게 遂行하고자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圖書나 新聞·雜誌에 依存하지 않고는 世界의 다른 場所에서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自宅의 문 앞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圖書館의 가장 素朴한 機能은 모든 階級, 모든 人種, 모든 宗派, 모든 世代의 民衆에게 자유롭게 열려있는 知識이나 經驗의 倉庫가 되어야만 存在價値가 있는 것이다. 近年 先進各國의 圖書館活動은 훌륭하게 成長해가고 있어, 受動的인 倉庫로서의 役割에는 한층 幅넓은 責任을 擔當해 가고 있다.

圖書館은 民主主義文化의 發源地로서 모든 分野에 걸친 知識·情報가 包含된 文獻資料를 蒐集·公開하여 地域住民의 利用에 있어서 機會均等化를 實現하는 것을 使命으로 하는 것이 原則이다. 디지온(Ditzion, S.)은 “公共圖書館은 民主主義文化의 兵器工場²⁾”이라 하였고, 確井正久는 “公共圖書館은 地域住民의 意向을 最大限으로 反映하는 것이 原則이다.”³⁾ 하였듯이 近代의 圖書館은 民主主義(Democracy) 속에서 誕生하여 育成·發展해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館의 다양한 業務가 컴퓨터에 의하여 改革되어 새로운 圖書館의 技術이 誕生하고 있다는 一面 뿐 아니라, 좀더 깊은 意味에서 圖書館이 社會的인 立場에서의 變革, 圖書館利用의 變化가 能히 豫想된다.

이 轉機의 現實的인 重要한 處地에서 찬스(Chance)를 圖書館活動의 새로운 氣運을 造成하기 爲하여 個別的인 活動이 아닌 團合的·協同的인 圖書館의 一體화된 活動으로 誘導하여, 從來에 「圖書館의 利用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豫算의 增額이 반영되지 않으며, 그것이 또한 利用을 減少시킨다」라는 圖書館의 前 近代의·封建的인 活動의 惡循環을 發展的인 循環으로의 轉化에 對한 原動力으로서, 圖書館의 一體화된 相互協力이라는 積極的인 活動策을 摸索하여,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的인 方向을 提示하고, 이 循環의 轉化를 이루는 原動力을 圖書館의 存立基盤인 市民의 日常生活에 없어서는 안될 機關·施設이라고 스스

2) Ditzion, S.: *Arsenal's of a Democratic Culture*, N. Y., Grove Press, 1947 (Preface)

3) 確井正久: 社會教育, 東京, 大學出版會, 1971, p. 461. (戰後日本の 教育改革 10).

로 自覺할 수 있도록 社會에 뿌리를 내리게 하며, 市民의 要求는 分明히 資料의 圓滿한 提供이므로, 새로운 時代에 必要로 하는 生産·콘트롤(Control) 提供이 管理的 階層에 集中하여 大衆은 그 밑에서 制御되는 管理社會로 轉落하고 있는 傾向이 뚜렷한 現實에 브레이크(Brake)를 加하여, 모든 사람들이 平等하게 情報化社會를 享受하고, 平生教育의 意慾을 높여 배우고 싶을 때 배우기 위한 學問資料를 언제든지 얻어 볼 수 있도록 圖書館制度의 體制를 整備하여 各種圖書館의 一體化된 活動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圖書館의 活動을 積極的인 方向으로 轉化한다는 것은 大衆教育·社會教育的으로 今後 國家·國民의 運命을 左右할만치 重大한 問題이기도 하다. 市民이 眞實한 圖書館奉仕를 強力히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現狀에서 새로이 國民大衆을 眞實로 위하는 圖書館이 되기에 必要한 하나의 里程碑로서 우리나라 圖書館의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여야 할 公共圖書館의 一體化된 相互協力體制의 整備策과 圖書館이라는 本質에서 圖書館制度 및 活動을 再檢討·再構成하는 方策을 마련하는데 目的을 두고 本研究를 進行하였다.

나. 研究의 對象과 方法

앞으로의 韓國圖書館界는 活動面에서 同種·異種 또는 專門別의 圖書館이 相互 一體化된 協力關係없이 그 館自體의 本來的인 業務를 遂行할 수 없음을 假定하여 이의 體系化를 위한 方案을 마련함을 主된 對象으로 삼았다. 文獻資料 즉 모든 情報量의 爆發的인 增大가 必然的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며, 컴퓨터의 發達은 協力の 可能性을 한층 促進하고 있다. 이른바 圖書館間의 一體化된 相互協力이라는 것을 無視하고는 이미 有效·適切한 圖書館活動은 不可能하다는 情況에 이르고 있다.

實地로 눈을 돌려 우리나라 圖書館界를 볼때, 圖書館協力の 重要性이 認識되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 初期부터 싹트고 있으나, 一部の 館種이나 一部の 分野에 있어서도 多少 差는 있으나 아직 着實한 實現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圖書館의 全體的인 面에서 볼때도, 理論的으로는 누구나 그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나 實行面에서는 아직 아득한 일임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特히 館種을 超越하고, 地域을 넘어선 圖書館의 協力は 情報量의 激增이라는 現實과 時代의

要請을 생각할때, 오늘날의 圖書館이 直面하고 있는 가장 큰 課題이다. '60年代 後半期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近代化에 의한 進展이 顯著함은 世界의 사람들에 의한 높은 評價는 周知의 事實이겠으나, 圖書館을 위시한 文化施設에 있어서는 發展이 이에 隨半되지 못하고 있음은 遺憾된 일이며, 이것을 一段의 水準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圖書館人과 施政當局의 큰 責任이다.

圖書館界에 있어서도 近年 充實의 方向을 向하여 꾸준한 努力을 하고 있으나, 圖書館마다의 單獨의인 活動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고로 圖書館活動의 近代化에 있어서 樞軸이 될 圖書館間의 協力과 네트워킹(Network)의 形成을 對象으로 研究를 進行하였다.

그리고 圖書館組織上의 問題로서 公共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地域組織과 國立中央圖書館을 主軸으로 한 全國的인 組織을 假定하고, 이에 따른 組織形態, 法制上의 問題, 活動內容, 特殊 專門圖書館과의 連繫 등에 관한 最善의 方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國內圖書館의 實態를 分析하고, 海外圖書館事情의 探索과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따른 理論的 根據를 摸索하는데 重點을 두고 研究를 進行하여 將來에 對한 展望을 밝히고자 努力하였다.

2. 先行研究 및 制度의 探索

가. 圖書館活動의 一體化된 統合傾向

第二次 集團에 있어서의 圖書館活動을 보기 위하여 남겨진 分野는 職能集團으로서의 圖書館員의 自己 規制力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文化教育機關이 分化·發展하면 異種類의 施設間은 물론, 同種類의 施設間에서도 차츰 有機的인 聯關·協력이 稀薄해지는 傾向이 있다. 그뿐 아니라 現代社會의 進展에 따라 第一次集團內의 施設에 대한 機能達成에도 支障이 招來하게 된다. 그러므로 自己規制力으로서 무엇인가의 統合을 必要로하게 된다. 이 統合은 國家權力の 干涉에 의하여 實現되기도 하나 自己規制가 實質的인 다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統合의 方法에 몇가지의 型을 우리는 發見할 수 있다. 第一은 同種施設活動의 地域的·全國的인 統合이다. 第二는 同種異種을 막론하고

施設間의 同種사이에서와 같은 近似的인 活動의 統合이다. 第三은 異種 施設間의 地域的 全國的인 統合이다. 第一의 型은 즉 大都市라든가 一 地域內에 圖書館組織(혹은 圖書館網)을 形成하는 것이다. 네덜란드(Netherlands)에서는 地區內의 公共圖書館이 協力하여 「地區公共圖書館聯合」을 結成하여 中央콜렉션으로 一定量을 채워 이것을 箱子에 넣어 各種團體나 小圖書館에 貸出하고 있다. 프랑스(France)의 貸出 文庫制度도 中央에서 一元化하여, 북 모빌(Book·Mobile)로 各州를 巡回하고 있다. 에집트(Egypt)에서는 市立圖書館은 모두 國立圖書館(Dar'1 Kutub Al Misriah)의 監督下에 있어 圖書의 選擇, 目錄·分類等 技術的인 處理에 對하여 一元的인 援助를 받고 있다. 그러나 市立圖書館의 財政은 물론 各各 地方自治體에 맡기고 있다. 스위스(Swiss)의 「全國民圖書館」(Bibliothèque Pour Tous)은 全國서어비스를 위한 唯一의 公共圖書館으로 各地에 分館을 두고 貸出巡回文庫로 山間僻地에 서어비스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600餘個의 公共圖書館組織이 있어 各組織은 몇개의 서어비스·포인트(Service Point)를 가지고 있으며 그 總數는 31,077에 달하고 있다. 이 서어비스·포인트에는 14,297의 學校圖書館, 559의 病院圖書館, 89의 刑務所圖書館, 153의 移動圖書館이 包含되어 있다.

第二의 型으로서 가장 大規模的인 것으로는 美國의 파아밍톤·플랜(Farmington Plan)이다. 이 計劃은 圖書館의 協同購入計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48年 發足 當時는 主要한 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 54館 사이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相互 無用한 重複購入을 避하고 世界에서 出版되는 라틴(Latin)·알파벳(Alphabet) <現代는 슬라빅(Slavic) 알파벳(Alphabet)>의 國語로 쓰여진 研究上 必要한 文獻을 적어도 1冊은 반드시 美國內의 어느 圖書館에 購入하여 議會圖書館의 印刷目錄에 登載하고 相互貸借나 마이크로·필름·서어비스에 의하여 各地에 研究者가 利用되도록 하는 方法이다. 이 때문에 參加圖書館은 特定의 學問分野가 割當되어 그 分野의 圖書를 購入할 責任을 갖는다. 이 외에 共同目錄作業 第二線圖書(잘 利用되지 않는 圖書)의 共同管理가 즉 美國의 MILC(Midwest Inter Library Center) 등에서와 같이 盛行하게 되었다. 美國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地域教育計劃에 있어서는 TVA當局, 地方教育當局, 各大學擴張部,

公共圖書館, 試驗所, 實驗農場, 커뮤니티케이션·센터, 學校, 各種團體, 組合등이 자진하여一體가 되어協力하고 있는 地域의 全體의인 向上을 위하여 貢獻한 것은 有名하다. 덴마크(Denmark)는 歷史博物館, 美術館, 科學博物館, 動物園, 水族館, 植物館, 圖書館, 體育館, 集會所, 호텔등의 施設이 勞働者教育協會, 學習서어클 및 國民高等學校등과 協力하여 教育·文化的인 成果를 거두고 있다. 中國은 圖書館, 博物館, 文文館, 文化스테이션등을 網羅한 「文化網」이라는 用語로 表現하고 있듯이 全國的인 統合體制를 취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統合의 成否는 職能集團으로서의 專門知識과 道德上的의 깊이 및 實情에 따른 適應 내지는 創造해가는 識見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나. 先行制度의 分析

圖書館이 어떠한 形態로 相互協力的인 事實은 特히 資料의 蒐集面(手寫에 의한 것도)에서 파피루스(Papyrus)時代나 中世修道院의 文庫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相互貸借와 綜合目錄의 編纂은 15世紀부터 西歐에서 存續되어오고 있음”⁴⁾은 圖書館의 相互協力的에 대한 手段으로서 긴 歷史的인 行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社會制度로서의 圖書館이 社會的 要請에 對應하게 된 것은 20世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그리고 各國의 實情에 附合되는 方法·內容에 依하여 實施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現代圖書館으로서의 歷史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圖書館運營面에서 姑息的이고 封建的인 活動에서 相互協力的에 관한 限 그 研究나 實際面에서 史的인 考察의 餘地가 별로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고로 本欄에서의 主要海外的 制度 및 研究實態를 根據로 分析해 보고자 한다.

(1) 圖書館協力的 制度化 傾向

圖書館의 協力的活動이 一時的인 氣分으로 龍頭蛇尾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이의 永續的·發展的인 것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반드시 制度를 確立하여 參加館이 各己 그 制度의 圓滑한 實施·運營에 積極的인 參

4) 北島武彦: 圖書館協力的について, その理念·歷史·實務.(圖書館協力シリーズ), びふろす, Vol. 11, No. 10, p.12.

與가 必要하다. 이 制度化에 對한 것을 “先行研究”⁵⁾와 各國의 現行 制度를 分析하여 그 重要的 事項을 列擧하고자 한다.

a. 委員會의 設置

豫定된 센터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委員會·協議會를 두고 모든 事項에 對한 根本的인 方針이나 實施上의 大綱을 決定한다. 이 때에 豫備 調査를 實施하여 協力活動에 있어서 推進할 作業量을 測定하고 設備·人員·經費등에 對한 事前配慮를 先行하고 準備가 끝나면 實際 運營上의 連絡·調整을 위한 委員會나 協議會를 新設하든가 前記의 準備的인 委員會가 協議會로 代替한다.

b. 目的·內容의 明確化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主題分野에 대하여 또는 어떠한 業務內容에 대하여 協力活動을 進行할 것인가를 明確하게 하고 있다.

c. 協力網의 設定

相互協력에 관한 關係規定을 定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Network)의 組織을 形成한다.

d. 擔當部署의 決定

各參加館은 센터圖書館 및 參加館과의 連絡窓口를 擔當하는 部署를 明確하게 設置하여 그 任務·財務 및 關聯部署와의 連絡·協助의 體制를 이루고 委員會(協議會)에 派遣할 代表者·委員도 여기에서 選出하고 있다.

e. 手續·書式의 制定

協力活動을 위한 手續이나 書式을 決定하여 各參加館에서 統一을 기하고 있다.

f. 設備·人員·經費

各參加館에 있어서 協力活動의 圓滑과 持續的인 發展을 위한 設備·人員·經費등을 事前에 準備하고 있다.

g. 協定の 締結

委員會(協議會)를 中心으로 各參加館의 사이에 明確한 相互協定을 締結하고 있다.

5) 村尾成允: 情報の提供と サービス,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5, pp. 178-179.

以上과 같이 分析해 보았으나 이 制度化의 重要事項 이외에 添加할 것은 圖書館의 相互協力에서 財産·施設·物品·經費, 때에 따라서는 職員도 管理責任者를 달리하고 있는 機關·施設간에서 共用 또는 流用에 提供할 不可避性이 介在할 수 있으므로 이의 管理에 관한 諸問題도 事前에 充分히 檢討해 두는 것이 重要하며, 이러한 管理問題를 消極的·制限的으로만 解決하려고 하면 協力組織의 存續이 不可能하게 되지 않을가 豫測이 간다.

(2) 協力の 內容分析

圖書館의 相互協力活動 內容에 대한 發展過程과 現行的 先行制度를 分析하면 그 主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資料蒐集協力

모든 科學分野가 極도로 分化되고 研究의 加速化 現象에서 近年 出版物의 激增을 招來하고 있다. 이 巨大한 量의 山出版物을 包括적으로 一館에서 蒐集하여 研究者나 利用者의 要求에 應하기에는 到底히 不可能하다. 이와같은 現象에서 世界各國은 이의 緩和를 위한 方便의 하나로 二館 以上이 相互協力하여 問題를 解決하려는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認識이 된다.

여기에서 筆者는 “데이비드(David, Charles W.)”⁶⁾의 理論을 主로 引用하고 거기에 國際文換蒐集을 加味하여 함께 分析하고자 한다.

첫째로 協力購入에 대하여는 數館이 協力하여 資料를 集中的으로 購入하는 方法으로 가장 成功한 例는 1929年~1939年에 걸쳐 美國의 大學圖書館 사이에 카네기(Carnegie)財團의 補助金으로 實施한 것이다. 즉 125 個館의 大學圖書館이 參加하여 中央購入事務局을 設置하고 參加館에서 各自 選定한 圖書를 一括購入하는 方法을 취하였고 그 結果 10%~25%의 財政節減을 가져왔다고 한다.

둘째는 專門別蒐集이다. 이것은 二個館 以上이 一定한 主題分野에 대하여 蒐集上의 責任分擔을 정하여 不必要한 重複을 避한 圖書館資源의 充實을 期함을 目的으로 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의 創始的인 役割을 감당한 것은 1896年 美國의 시카고(Chicago)에 있는 “3館의

6) David, Charles W.: Cooperation and Planning from the Regional Viewpoint, Library Trends, Vol. 3, No. 4, 1955. pp. 356-375.

公共圖書館이 相互協力에 의한 資料相互蒐集協定”⁷⁾으로 專門別(科學技術, 人文科學, 一般)分擔蒐集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美國에는 議會圖書館의 遠心的인 協力活動에 대하여 수많은 大學·學術·專門 및 調查圖書館의 相對的인 協力組織이라고 볼 수 있는 收書分擔의 協力活動이 있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는 “파밍톤·플랜(Farmington Plan 1948~)”⁸⁾이 있다. 이것은 世界 第2次大戰後 1948년에 獨逸등의 圖書 및 其他 資料를 될수록 網羅的으로 蒐集하기 위하여 全國的인 次元에서 協同蒐集하는 機構로 發足하였던 것이다.

西獨에서는 美國에 비하여 小規模의 파밍톤·플랜을 實行하고 있다. 즉 大·中의 公共圖書館 20餘館이 共同으로 “專門領域別收書計劃”⁹⁾을 組織하여 外國書의 特殊콜렉션을 갖는 경우 그것을 擴大하여 重複購入을 避함과 同時에 研究資料의 1部는 獨逸에서 蒐集하게 된다. 美國과는 달리 包括的인 蒐集이 아니라 目錄에 의하여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것만을 選擇購入하고 있다. 즉 美國과 같이 包括的인 購入(Blanket Order)은 하지 않는다. 그 新着書는 外國新書의 全國目錄에 報告된다.

英國에도 “分擔保管制度(Subject Specialization Scheme)”¹⁰⁾가 있어서 各館이 어떠한 分野에 對한 圖書의 蒐集 保存에 對하여 割當 받으며 加盟館 全體로서 全分野의 圖書를 적어도 1部는 蒐集保存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全國을 하나의 組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地區協力組織이 獨自的으로 全分野를 카바하는 分擔蒐集에 의하여 保存하는 것으로 分擔은 地區理事會에서 各圖書館의 地域社會에 合致되는 範圍 안에서 決定된다.

中華民國의 “袁金書”¹¹⁾는 臺灣省立臺北圖書館의 1萬餘點에 달하

-
- 7) 鄭炳洸: 圖書館協力的 問題點, 서울, 國會圖書館報, Vol.5. No.8(1968.10) p.7.
- 8) William, Edwin E.: Farmington Plan Handbook, Bloomington, Ind.,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53, p.170.
- 9) Andrews, John S.: Public Library in West Germany, Lib. Ass. Rec., Vol. 70, No. 9, Sept. 1968, pp.18-21.
- 10) 圖書館協力. 見たまま: 英國圖書館의 實情을 問く(鈴木四郎, 前川恒雄, 丸山昭二郎, 森博의 對談文), 圖書館雜誌, Vol.58, No. 9, 1964, pp.382-387.
- 11) 袁金書: 何何發展公共圖書館事業, 臺灣省立圖書館刊, 第4期, 民國60年(1971), pp.1-4.

는 南洋關係資料의 分擔蒐集에 의한 實績을 내세우면서 分擔蒐集의 重要性을 謁破하였다. 즉 「公共圖書館以經費有限」이라 하여 公共圖書館의 限定經費를 들고, 「收藏圖書最好各有各的重點, 各就各的特性與需要, 共求發展」이라 하여 藏書는 各各 重點을 두고 特性和 需要에 맞도록 함이 圖書館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여 專門別의 資料蒐集을 強力히 主張하였다.

세째는 資料의 保管協力이다. 藏書는 繼續 急速度로 增加하고 있으나 이를 保管·利用할 場所나 蒐集豫算은 恒常 制限되게 마련인 것이 一般的인 狀況이며 利用頻度を 생각해 볼 때 모든 冊이 同時に 利用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자주 利用되지는 않지만 保存의 價値가 있는 資料(Little-used Materials) 등을 數館이 協力하여 한 場所에 收藏하고 必要에 따라 利用시킬 수 있게 하는 協力制度가 必要的인 것이다.

1942年 하바아드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보스턴(Boston)周邊의 圖書館이 協同하여 設立한 “뉴·잉글랜드·데포지트·라이브러리(New England Deposit Library)”¹²⁾는 그 뛰어난 一例이다. 이 制度는 單純하게 參加館의 書架에서 利用도가 낮은 圖書를 除去하여 書庫의 狹隘을 救할 뿐 아니라 高價인 關係로 積極인 單獨購入이 不可能한 資料를 協力하여 蒐集하는 計劃으로 援用하고 있다.

1951年 美國의 中西部에 開設한 “인터·라이브러리·센터(Midwest Inter-Library Center)”¹³⁾가 代表的이라 하겠다. 이 機關은 10個 大學이 協力하여 된 것으로 그後(1965) 全美的인 組織으로 發展하여 200萬冊 以上の 稀用圖書를 所藏하고 있다.

네째는 資料의 國際交換이다. 이는 圖書館 學會등이 他國의 類似한 機關과 出版物을 相互 提供하는 契約·協定 또는 締結을 말하는 것으로 非公式으로 便紙의 交換에 의하여 맺어지는 것이 普通이다. 原則적으로 特別한 形式과 같은 것은 없다. 外國資料 特히 政府刊行物·學

12) Esterquert, R.T.: Progress Report on Midwest Inter Library Center, College & Research Lib, Vol. 12, 1951, pp. 67-68.

13) Midwest Inter-Library Center는 1965년에 Centre for Research Libraries(CRL)로 改稱됨.

術團體出版物 등 商業的인 루우트(Route)로는 入手하기에 困難한 出版物의 蒐集에 必要한 手段일뿐 아니라 圖書費의 節減이나 知識의 交流에 의한 國際的인 理解를 增進하는데 重要한 役割의 하나이다.

“國際交換의 沿革”¹⁴⁾은 유럽에서는 17世紀末부터 시작되었다. 그後 19世紀 中葉 프랑스의 腹話術師인 알렉산드르·바트마아르(Alexandre Vattemare)는 美國과 유럽 사이에 重複圖書의 交換을 斡旋하였다. 1851年 워싱턴(Washington)의 스미스소니안協會(Smithsonian Institution)에 國際交換局(International Exchange Service)이 設置되어 美國과 諸外國과의 사이에 交換圖書輸送을 위한 仲介를 하게 되었다. 1886年 페루(Peru)의 브뤼셀에서 맺은 所謂 브뤼셀協定(Brussels Convention)은 政府刊行物의 交換, 國際交換局의 設置, 學術出版物의 交換에 대한 斡旋을 위하여 締結된 것으로 最近 유네스코(Unesco)가 새로운 國際交換協定을 採擇하기까지 國際交換에 관한 多數國間的 協定으로는 唯一의 것이었다. 韓國이 처음으로 國際交換에 參加한 것은 1960年代初의 브뤼셀協定의 一環으로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國際交換의 斡旋을 한데서 시작된다. 그후 1964年 부터 이 斡旋業務는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引受하여 現在까지 持續하고 있다. 그리고 政府間 國際交換協定은 美國과의 사이에 政府刊行物을 一括交換하게 된 1968年 부터이다. 이것도 역시 美國議會圖書館과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과의 사이에 맺어진 協定이다. 그리고 現在 “國立中央圖書館은 世界 68個國 269個處와 資料의 交換을 活潑하게 進行하여 年間 2萬點~3萬點의 交換實績”¹⁵⁾을 올리고 있다.

美合衆國圖書交換所(United States Book Exchange <U.S.B.E.>)는 1948年 當初 록펠러財團(Rockefeller Foundation)의 援助를 얻어 設立한 民間團體로서 美議會圖書館, 美國教育審議會 등 19個團體가 後援하고 있다. 重複圖書의 國內 및 國際交換을 媒介하는 것이 主目的이다. 美國內的 圖書館은 물론 世界各國의 圖書館은 自由로 이 交換組織에 加入할 수 있다. 參加館은 隨時로 重複圖書를 USBE에 送付하고 USBE는 蒐集된 資料의 리스트를 作成하여 參加館에 配布하여

14) Kipp, Laurence I.: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Wakefield, Mass., Murray Print, Co., 1950, pp.3-8.

15) 國立中央圖書館 指導協力課 提供

希望圖書을 選擇케 한다. 受領圖書館은 手數料로서 單行本 50 센트, 定期刊行物 25 센트를 支拂한다. 現在 北美地域에 있는 圖書館 2,000 餘館(美國 1,200 餘館, 캐나다 800 餘館), 우리나라는 一部 大學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이 이에 加入하고 있다.

다음은 “유네스코의 國際交換活動”¹⁶⁾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世界 第2次大戰中 많은 國際交換關係가 中絶되었다. 戰後 交通遞信 등의 障害下에 文化交流의 手段으로서 國際交換은 크게 注目되었으나 그 推進에 가장 尽力한 것은 유네스코이다. 圖書館部에 設置된 唯一의 國際的인 交換幹旋機關으로 重複圖書리스트의 配布, 유네스코圖書館公報(Unesco Bulletin for Libraries)의 刊行, 國際交換헨드북(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의 編纂刊行 등을 하고 있어 國際交換의 發展에 寄與하고 또 종래 單純한 輸送面에 對한 幹旋機關에 지나지 않았던 國際交換局의 機能을 擴大하여 積極的으로 交換에 關한 情報의 提供을 行하는 새로운 型의 國際交換센터로 하는데 努力하였다. 더욱 유네스코는 第9回總會의 決議에 의거한 브릿셀協定에 대신할 國際交換에 관한 새로운 國際協定案을 準備하고 있었으나 1958年의 第10回總會에서 正式으로 이것을 採擇하였다.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은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는 圖書館法 第17條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의 諸機關 및 地方公共團體의 出版物을 同法 第12條 第1, 2項 및 國際交流를 위한 圖書館資料納本規定(大統領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版物의 發行部數에 따라 20部~40部를 公用 및 國際交換用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도록 되어있다. 同館은 이러한 納本이나 其他의 資料를 使用하여 前述한 바와같이 世界各國과 政府刊行物이나 기타 資料의 交換을 實施하고 있다.

또 國立中央圖書館은 國際交換資料의 受託業務도 擔當하고 있다. 國內의 圖書館, 學術團體 등이 交換의 目的으로 外國에 出版物을 送付하는 경우 一定한 手續에 따라 이것을 國立中央圖書館에 委託하면 運賃을 同館이 負擔하여 海外에 發送하는 制度가 있다. 또 外國에서 韓國

16) Unesco: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Paris, 1950, p.369, do.2ed. Paris, 1956, p.507.

의 圖書館, 學術團體 등에 送付되어오는 交換圖書도 各國의 國際交換局에서 一括하여 同館에 보내면 이를 中繼하여 國內의 受取人에게 無料로 配布된다. 이 서어비스는 國際交換을 促進하고 文化의 交流에 貢獻하기 위한 것으로 營利的인 것은 除外된다.

b. 書誌作成의 協力

유네스코는 第1回總會에서 “圖書館의 相互貸借發展問題”¹⁷⁾를 採擇하여 그 基本的 틀(Tool)인 綜合目錄의 作成에 關한 研究를 進行하였다. 첫 段階로 國際적으로 共用할 수 있는 目錄規則을 作成하여 프랑스 등에 實驗作業을 進行시키기 까지 하였으나 이 全體計劃은 너무나 龐大하고 財政의 過重한 負擔으로 中斷하고 말았다. 그러나 各國은 綜合目錄의 作成에 熱을 올리고 있는 實情이다. 그 實例로서 美 英·獨의 綜合目錄事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47年부터 美國議會圖書館에서는 全國綜合目錄을 刊行하기 始作하였으며 1971年부터는 出版同時編目計劃(Cataloging in Publication Program)으로 編目情報를 出版과 同時에 每冊에 直接 表示하기 시작하였다. 以外에 美國은 各地域單位의 綜合目錄 및 其他 特殊綜合目錄이 가장 發達되었고 캐나다도 이 美國의 影響을 받아 이 綜合目錄事情은 상당한 發展을 가져오고 있다. 즉 各州의 地域綜合目錄을 基本으로한 國立圖書館의 全國綜合目錄作成은 상당한 進展을 보고 있으며 週及綜合目錄도 着手하여 完全한 文獻의 宇宙形態를 갖출 날도 머지 않은 듯 하였다.

英國은 各地區事務局에서 作成하고 있는 綜合目錄이 카아드目錄으로, 카아드의 裏面에 그 圖書의 所在館을 表示하고 있다. 綜合目錄의 作成維持는 實로 困難한 作業이지만 특히 各圖書館이 收書된 圖書와 除籍圖書에 대한 迅速한 通知를 確實하게 하지 않으면 綜合目錄은 維持·發展시킬 수 없다. 英國의 圖書館은 이러한 根本的인 難題를 잘 解決하면서 作業하기 위하여 全國書誌(British National Bibliography)라는 書誌機關에서 地區事務局의 綜合目錄을 모아서 全國綜合目錄을 同名인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라는 書目으로 刊行하고 있다.

17) 任鍾淳: 유네스코의 圖書館活動, 國會圖書館報, Vol.5, No.8, 1968, pp.11-18.

“西獨의 地域別 綜合目錄의 作成”¹⁸⁾은 各大學圖書館(Stuttgart, Göttingen, Cologne, Munich, Berlin, Hamburg, Bremen, Frankfurt 등)에서 擔當하고 있다. 世界第二次大戰으로 因하여 荒廢한 西獨의 學問研究에 대한 復興을 위하여 各種研究計劃에 對한 助成이나 研究者 相互間의 連絡·協力關係를 推進시켜 특히 젊은 研究者를 育成하는 하나의 手段이기도 하였다. 이 事業은 大戰 이후 獨逸의 圖書館事業을 重點적으로 展開하여 圖書의 收書範圍를 分擔하는 등 全獨逸을 機能적으로 作動할 수 있는 組織力을 構築해 왔다.

우리나라는 國立中央圖書館의 主導下에 1969年 2月 27日 서울市內 所在의 12個 主要圖書館의 代表로 構成된 綜合目錄編纂發起會를 거쳐 全國圖書館에 本編纂事業에 參加를 勸告한 바, 當初 74個館이 이에 參加하였으나 1981年 現在는 89個館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事業은 1970年부터 各參加館에 新規로 收書되는 外國圖書에 대한 카아트目錄을 國立中央圖書館에 直接 送付케 하여 年度別로 “外國圖書綜合目錄”이라는 標題로 刊行되고 있다. 1980年 現在 10個年分(1970~1979) 10冊을 刊行하여 全國에 配布하였다. 그러나 그 參加館이 一部 圖書館에 限定되고 있는 實情으로 앞으로 全國的, 地域的 또는 專門別 綜合目錄으로의 發展이 切實히 要求되며, 1970年 以前分에 對한 溯及綜合目錄과 國內資料에 대한 全國綜合目錄도 開發하여야 할 것이다.

其他 書誌活動에서는 유네스코가 英國의 圖書館과 協力하여 全世界의 書誌的 奉仕의 現狀(1951~1953)을 調查하여 그 結果로 書誌活動分野에 크게 刺戟을 誘發시켰고 組織的인 調查를 促進하기 위한 目的으로 “世界의 書誌奉仕(Bibliographical Service Throughout the World)”¹⁹⁾라는 標題의 冊子를 刊行하여 世界各國에 普及하였다.

그리고 1969年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開催된 國際目錄會議에서 「國際的인 書誌記錄의 標準案」을 制定하도록 提案되어 그후 地域別 代表들이 研究成案한 “ISBD(International Standards Bi-

18) 鄭炳浣：前揭論文， p.7.

19) Bibliographical Service Throughout the World 1951/53 by L.N.Malce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Bibliography, Paris, UNESCO., 1955, 352 p. (UNESCO Bibliographical Handbook, 4)

bliographical Description)”²⁰⁾가 1971年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 總會의 目錄分委에서 正式으로 採擇되었다. ISBD의 目的은 書誌的 記錄의 汎世界的인 基準을 提示하려는데 있으며 各國 國家書誌의 統一的인 記錄을 可能하게 하고 書誌의 自動化에도 適合한 形式을 갖추려는데 있다.

美國에서는 廣域書誌센터 役割을 담당하는 “Bibliographical Center for Research Rocky-Mountain Region”과 “Pacific North-West Bibliographical Center”의 活動이 書誌協力の 代表的인 位置이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는 이러한 協力關係가 새로운 次元에서 最近 從來의 慣例的인 手法을 대신하여 마이크로複寫技術, 텔레타이프通信網의 利用, 電子計算機에 의한 情報나 目錄의 處理·作成등과 더불어 書誌協力活動도 情報의 供給·需要·膨大化에 對抗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綜合目錄과 其他 特殊書誌를 作成하기 위하여 全國書誌(British National Bibliography)라는 機關을 設立하여 이에 대한 담당을 하고있는 것이 獨特한 面이라 하겠다.

그러나 國家的인 書誌의 作成은 納本을 擔當한 圖書館에서 作成하고 있는 것이 通常的인 例로 되어 있으나 모두 圖書館이나 出版者의 協力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明白한 事實이다.

綜合目錄은 圖書館協力機構에 있어서 그 機能의 妙를 發揮하게 하는데 가장 重要한 道具의 하나이다. 즉 이 目錄은 2個館 以上の 圖書館이 藏書를 모든 利用者에게 널리 利用시키기 위하여 發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利用者가 希望하는 所定圖書에 대하여 그 所藏館을 利用者에게 通報確認케하는 것이 첫째 效用이다. 다음은 그 所在를 確認한 所定資料의 所藏館이 利用者로 하여금 遠隔地에 位置하여 直接 利用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그 利用者가 近接하고 있는 圖書館을 通하여 所定資料의 利用을 願望하는 것은 必然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綜合目錄의 編纂은 原則的으로 圖書館相互貸借가 前提가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相互貸借의 道具가 바로 綜合目錄이다. 그리고 圖書館利用者가 要求하는 資料는 실로 廣範圍하고 雜多하다. 거기에서 해마다 世界에서 生産되는 圖書館資料의 量은 尨大하다. 또 利用者 특히 學者·研究者·調査者は 必要로 하는 特定資料를 어디까지나 追求하고자 한다. 그

20) Cataloging Service Bulletin, 104, May, 1972.

그러나 圖書館 個個에 있어서 이 要求에 應하기에는 如何한 나라의 大 國立圖書館이라 할찌라도 不可能한 일이다. 고로 各圖書館이 共同으로 그 要求에 對處하는 必要性이 發生하여 圖書館間에 있어서 收書의 合理化를 圖謀하는 것이 近代圖書館經營의 重要한 한 要素가 되어지고 있다.

c. 圖書館資料의 相互貸借

圖書館 相互間의 圖書資料貸借은 一般的으로 그 目的을 學術研究에 必要한 資料로 制限을 두고 있다. 이를 利用者의 要求·希望에 應하여 全資料를 圖書館相互間에 貸借한다면 많은 弊害를 發生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學術研究의 目的이라는 範圍를 廣義로 解釋하는 것이 圖書館資料의 相互貸借制度를 助長하는데 더한 힘이 될 것이다.

美國議會圖書館의 一般相互貸借規程(1952)의 第2條에는 「相互貸借의 目的은 調査·研究을 위하여 當該 圖書館에 없는 資料를 貸出圖書館의 본래의 利用者에 대한 權利를 正當하게 考慮하면서 入手하는 것이다」라고 定義하여 그 目的을 明白히 하고 있다.

결국은 相互貸借라고 하는 것은 利用者 個人을 위하여 한 圖書館이 다른 圖書館에 資料를 貸出하는 措置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圖書館間의 協力을 實現하기 위한 館外貸出制度라 보아진다.

이와같은 相互貸借制度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이것을 일찍부터 實施한 나라는 美國과 獨逸이다. 美國에서 最初로 相互貸借가 이루어진 것은 1876年의 일이며 이것을 처음으로 組織化한 것은 워싱턴의 軍醫圖書館이었다. 美國圖書館協會는 1917年에 「圖書館相互貸借實務規程」을 刊行하였으나 그후 수차례 걸쳐 改訂을 加하고 1952年에 이르러서야 一般相互貸借規程(General Interlibrary Loan Code 1952)을 制定하였다. 이것은 16個條로된 것으로 長期間의 經驗과 知識으로 다져진 充實한 內容을 지니고 있어 現在도 널리 이를 利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非公式의이거나 特殊分野에 대하여 圖書館相互協力の 一環으로 相互貸借가 이루어진 것은 오래된 일이겠으나 組織的인 圖書館間의 相互貸借制度에 長期間 論議만을 거듭하다가 實質的인 實現은 1967年 國立中央圖書館이 역시 主導하여 뜻있는 圖書館人들의 協助를 얻어 正式協定이 採擇되었다. 이 協定이 이루어진 經緯는 〈圖表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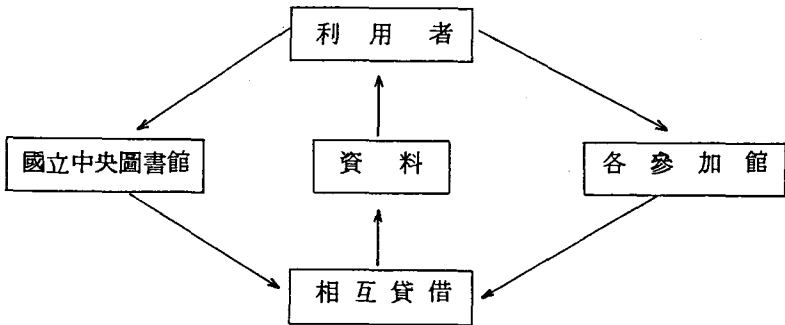
〈圖表 1〉 相互貸借의 成立經緯

活動日字	區 分	活 動 內 容
1967. 9. 6		相互貸借制度의 共同發起
1967.10.11		相互貸借協定案 採擇
1968. 2. 8		相互貸借調整委員會 構成
1968.11.18		相互貸借協定施行細則 採擇
1968.11.20		相互貸借協定 施行
1981. 5. 1		參加圖書館 16館

※ 資料 : 國立中央圖書館 提供

또 이 相互貸借가 이루어지는 經路를 透視圖로 나타내보면 〈圖表2〉와 같다.

〈圖表 2〉 相互貸借 透視圖



透視圖에서와 같이 모든 資料의 要請은 利用者가 發見하며 이를 받 아들인 圖書館은 自館資料를 貸與하든가 自館에 없는 資料는 國立中央

圖書館이나 各參加館에서 借受하여 利用者에게 提供하고 있다. 그러나 一切의 費用은 要請館에서 負擔하고 있다.

그러나 이 相互貸借制度는 發足當時의 參加館 16館이 10數年이 經過한 오늘날에도 조금도 불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 實績조차 稀少한 實情으로 再檢討·再構成할 必要性이 있다고 하겠다. 要는 相互貸借의 基本이 되는 綜合目錄의 整備가 없이는 名實 共히 全國的인 圖書館資源의 廣域利用이란 더욱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圖書館 相互協力이란 組織體制의 整備와 이 組織體制의 構成圖書館間의 相互協助로서 全國綜合目錄, 地域綜合目錄, 特殊綜合目錄의 整備가 先行되지 않고는 相互貸借의 圓滑은 도저히 期할 수 없다.

獨逸은 1893年 프로이센(Preussen)州立, 베르린(Berlin)大學圖書館과 州內의 大學圖書館 사이에 相互貸借가 確立되었다. 1924年 學術研究圖書館間에 “獨逸相互貸借規定(Deutsche Leihverkehrsordnung)”²¹⁾이 만들어졌고, 1951년부터는 一般公共圖書館도 이에 加入하기 시작하여 現在 500餘館이 參加하고 있다.

1971年 가을 리버풀(Liver-pool)에서 開催된 IFLA總會에서 發表한 에클즈(Eccles, Lord)의 着想인 “資料의 蒐集과 貸出을 위한 多目的 協定(Multi-lateral Arrangements)”²²⁾에 對하여 챠드러(Chandler, George) 리버풀市立圖書館長은 이러한 組織體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英國圖書館에서 國際的인 相互貸借制度의 創設을 擔當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이 提案은 그후 國際的인 相互貸借制度라는 面에서 宿題로 남아있는 셈이다.

英國은 圖書館協力の 全國的인 中心機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全國中央圖書館”²³⁾에서 各地區 相互間의 相互貸借를 主導하고 있다. 즉 圖書를 借受하고자 하는 圖書館은 먼저 地區事務局에서 解決할 수 없

21) Andrews, John S.: Public Library in West Germany, Lib. Ass. Rec., '70(9), Sept. 1968, pp.18-21.

22) Liaison, Feb. 1972.

23) 前川恒雄: イギリスに あける圖書館協力, 圖書館雜誌, Vol.61, No.1 (1967.1), pp.8-11.

을 경우에는 中央事務局(全國中央圖書館)에 보내진다. 여기에서도 解決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外廓圖書館이나 外國의 圖書館에서 빌려 申請館에 送付하는 體系로 되어 있다. 그런데 英國에서 特異한 事實은 圖書館의 相互協定으로 各己 發行한 貸借卷을 自館의 貸出卷으로 通用하고 있는 方法이다.

瑞典은 北·中·南部地方으로 三區分하여 郡圖書館의 要求圖書를 提供할 任務를 가진 “圖書館相互貸借센터”²⁴⁾를 두고 있다. 이 센터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圖書館은 南部地方에서는 1962년부터 말모(Malmö)市立圖書館에서 北部地方은 1965년부터 우메아(Umeå)에 南部와 비슷한 機關이 있으며 中部의 센터는 스톡홀름(Stockholm)市立圖書館에 設置中이라 하였으니 지금 쯤은 設置를 끝내고 活潑한 活動을 展開中이라 推測된다.

以上の 여러 事例에서 認識되는 것은 先進諸國에서는 協力の 圖書館組織과 이 組織의 活動으로 作成된 綜合目錄을 基礎로한 相互貸借制度가 各種 形態와 手段으로 活潑하게 作動하여 成熟해 가는 것이 昨今の 일이 아니라,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窮極的인 圖書館의 廣域奉仕에 대한 基本的·積極的인 活動이다.

d. 資料整理의 中央集中化 및 標準化

圖書館資料의 整理에 대한 標準化 및 中央集中化는 整理에 所要되는 人的·財政的인 節減은 물론 圖書館活動의 活性化를 위하여 絶對的인 것으로 그 代表的인 것은 印刷카아드制度이다. 이것은 그 나라를 代表하는 圖書館이나 機關에서 國內出版物에 對한 事前整理(分類·目錄)를 끝내고 그 整理事實을 카아드에 收錄하여 各館에 配布하는 制度이다.

美國議會圖書館에서 1901년부터 作成하고 있는 印刷카아드는 單純하게 各圖書館의 整理作業에 대한 標準化나 簡素化를 促進할 뿐 아니

24) Otterujk, Cösla; Hielmgrust, Bengt; Gumpert, Jan: Swedish Libraries, The Swedish Institute.

(成宅慶 譯:스웨덴 圖書館의 概觀, 도철월보, Vol.8, No.9, 1967.11. pp.325-334)

라 “全國綜合目錄의 作成, 地域書誌센터를 만들어 내는데 큰 貢獻”²⁵⁾을 하고 있다.

英國에서 印刷카아드를 配布하고 있는 機關은 大英圖書館에 事務室을 두고 있는 非營利團體인 “全國書誌(The Council of 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²⁶⁾라는 機關에서 擔當하고 있다. 現在 公共圖書館의 40%以上이 使用하고 있으며 最近 크게 伸長一路에 있어 런던周邊의 公共圖書館組織 一體가 이를 利用함이 다른 나라에 比하여 首都圈圖書館에서의 印刷카아드活用の 顯著한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란(Iran)은 테헤란(Teheran)에 있는 “圖書文獻센터(TEBRO-C)”²⁷⁾에서 印刷카아드를 作成하여 販布하고 있는 바 페르샤(Persia)語 目錄카아드는 注文에 의하여 海外에까지 販布하고 있다. 그러나 페르샤語의 目錄카아드는 翻譯이나 翻字하지 않고 原語로 表記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國立國會圖書館에서 印刷카아드를 作成·販布”²⁸⁾하고 있는 바 그 開始는 1950年代 初期에 시작되었고 1979年 現在 4萬餘標目에 4百萬枚 以上을 作成하여 235館에 配布하였고 印刷카아드의 價格은 1枚當 一括購入은 8圓, 選擇購入에서는 發注時期에 따라 11圓~16圓이다. 그리고 印刷카아드에 關聯되는 業務도 카아드를 端末機에서 直接 찍어내는 技術을 開發實施하는 등 全面的인 機械化가 進行中이다. 특히 印刷카아드業務의 全面的인 機械化에 隨半된 出版界에서 構想하고 있는 ISBN(國際標準圖書番號)의 시스템과 出版資料情報센터와는 直接, 間接의 相互協力을 段階的으로 進行할 것을 圖謀하고 있다.

以上에서 列舉한 主要協力內容 以外에 人事交流 및 圖書館弘報 등 雜多한 것이 많겠으나 煩雜을 避하기 위하여 省略하였다.

25) 鄭炳浣：前掲論文，p.7.

26) Liaison, London, Nov. 1967.

27) TEBROC는 Teheran Book Processing Center의 略語이다.

28) 日本圖書館協會 編：圖書館白書，1979, pp.37-41.

다. 나소날·플렌에 對한 展望

(1) 韓國圖書館의 立場에서

歐美를 비롯한 主要國의 圖書館界를 보면 同種·異種 및 專門別의 圖書館이 相互에 協力を 하지 않고는 그 館 自體의 本來的인 業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되어있는 時代의 趨勢가 되어진 圖書館의 一體화된 協力關係이다. 文獻資料 所謂 情報量의 爆發的인 增大가 必然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으며 컴퓨터의 發達은 協力の 可能性을 一層 促進하고 있다. 이른바 圖書館間의 相互協力이라는 것을 無視하고는 이미 有效·適切한 圖書館活動은 不可能이라는 情況에 있다.

情報化時代라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 圖書館事業이야말로 基本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이다. “情報를 蒐集하는 것, 즉 文獻을 蒐集하는 것이다. 後日의 檢索에 對備하여 必要한 加工을 施術하여 保存·提供하는 것이 바로 情報管理”²⁹⁾이다. 知識이란 情報의 짜임새이지만 그 情報의 짜임을 從來의 方法을 새롭게 變化시켜 보는 것, 이것이 成功하면 바로 創造(Creation)이다. 圖書館事業은 이러한 意味에서 知的 크리에이션의 터전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事業은 孤立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國際交流 속에서 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界에서 國際的인 窓口는 法的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이지만 同館이 國際的인 交流事業에 있어서 서어비스不足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代表圖書館으로서 부끄럽지 않게끔 交際하고 活動하도록 그 育成을 새로운 次元에서 國家는 支援을 해야 할 것이다.

(2) 東南아시아에 있어서의 圖書館計劃

“東南아시아 諸國에 있어서의 圖書館 네트워크(Network) 計劃”³⁰⁾에 대하여 그 特異한 點으로서 圖書館서어비스의 네트워크를 위한 全國計劃이라는 생각은 東南아시아 地域의 사람들로서는 새로움으로 여기

29) Arima, M.: Keynote Address.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ional Planning for Library Service Network < ISNPLSN > p.14) Pub. by National Diet Library, (NDL), 1980.

30) Quason, S. D.: Library Network Planning in Southeast Asia (ISNP-SN, pp.68-70), Pub. by NDL, 1980.

고 있는 것만은 事實인 듯하다. 특히 그것이 公共·私立·學術·專門이라는 各種 圖書館의 全國的인 連繫協力보다는 確實한 形態의 一元的이고 統制力이 있는 組織·機構를 希求하고 있다.

東南아시아地域에서 圖書館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이 地域이 지닌 多樣性和 複雜성을 들 수 있다. 이 地域의 圖書館은 그 設立의 背景·利用對象·財政基盤·活動範圍 등이 迥然 異質的으로 獨立된 個別化된 文化·情報의 源泉이 되고 있다. 그것은 물론 連繫協力이나 서어비스의 相互提供은 하고 있으나 아직 正式으로 機構化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圖書館의 大部分은 財政基盤의 貧弱·不充分한 施設, 專門家의 不足, 職員給與의 低廉, 業務의 重複, 技術改善에 必要한 費用의 過多, 圖書館서어비스의 組織的·綜合的인 調整難등 共通된 問題에 苦悶하고 있다.

即 싱가포르(Singapore)에 있어서는 機能이나 所藏資料의 重複이 많이 보이고, 또 싱가포르·인도네시아(Indonesia)·필리핀(Philippine)의 三國에서는 財源의 不足으로 圖書館協力에 不可避한 틀(Tool)인 全國綜合目錄의 編纂·刊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1978年 現在 인도네시아에서는 全國書誌의 作成에 不可缺한 法定納本制度가 아직 存在하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Malaysia)는 公共圖書館의 서어비스中 特히 兒童과 農村에 對한 서어비스에 弱點을 안고 있으며, 타일랜드(Thailand)에서는 專門司書와 資料購入豫算의 不足에 허덕이고 있다. 以上과 같이 東南아시아諸國이 안고 있는 缺陷은 地域內 圖書館네트워크의 組織化와 發展에 있어 큰 障害가 되고 있다.

東南아시아의 圖書館서어비스나 圖書館員의 狀況은 반드시 暗雲만은 아니다. 地域의 圖書館開發計劃에 대한 밝은 面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에서는 國立圖書館의 新廳舍의 建設이 第二次 말레이시아 開發計劃에 包含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未設置 3個州에 公共圖書館이 設立되었고 國立도큐멘테이션·센터가 과학분야의 도큐멘테이션 및 情報의 全國 네트워크를 만드는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兩國은 JSCLE (Joint Standing Com-

mittee on Library Education) 및 JSCBS (Joint Standing on Library Cooperation and Bibliographic Services)를 만들어 圖書館員이나 圖書館業務에 當面하여 兩國에 共通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着手하였다.

필리핀에 있어서는 國立圖書館과 TRC (Technology Resource Center)와의 協力에 의하여 全國書誌作成의 컴퓨터화를 實施中이다. 또 필리핀資料의 全國綜合目錄을 作成하기 위하여 國中에 散在하고 있는 특히 全國의 公私立圖書館에서 利用할 수 있는 人文·社會科學係資料의 調査를 가장 重要한 프로젝트(Project)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目下 緊急하게 必要로 하는 것은 NCLIS (National Council for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의 設置이다. 이것은 모든 利用者の 要求에 適應할 수 있는 圖書館·情報서비스의 全國計劃이나 政策的 立案·實施에 대하여 國務總理(首相) 또는 國會에 勸告하는 것으로 또 國家의 開發에 圖書館·情報서비스의 價値와 重要性을 政策立案者나 決定者에게 提示하는 것을 그 役割로 하는 것이다.

東南아시아 全域에 눈을 돌려보기로 하겠다. 먼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타이랜드·싱가포르의 各 國立圖書館으로 構成된 NLDC-SEA (National Library Documentation Center-South-east Asia)를 들 수 있겠다. 이 組織이 正式으로 設立된 것은 1977년에 3회에 걸친 會議의 成果로 그 設立目的은 「各加盟國의 國立圖書館이 센터가 되어 各己 自國에 圖書館네트워크를 組織하므로써 다른 加盟國에서 所藏하고 있는 資料를 그 네트워크의 構成單位가 利用하는 것을 容易하게 하고 또 다른 加盟國의 國立圖書館이 利用하고자 할 때 資料의 所在을 自國內에서 確認하게끔 한다」에 있다. 또 센터는 캐나다의 오타와에 있는 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財政援助를 받고 있다. 이 組織의 設立은 모든 利用者가 加盟國의 모든 資料를 自由로히 利用하게 하고 또 情報探索에 대하여 從來 結縛하면 볼 수 있었던 偏狹과 因襲的인 態度的 打破를 促求하며 나아가 地域의 圖書館서비스에 대한 將來를 밝게 하는데 期待된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地域的인 協力の 進展에 대한 例로서 CONSAL (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의 開催를 列舉할 수 있겠다.

1970年の第1回會議(싱가포르)에서 組織되어, 第2回會議는 1972년에 마닐라에서, 第3回會議는 1975년에 자카르타에서, 第4회는 1978년에 방콕에서 열렸다. 어느會議에서나 地域 또는 各國의 圖書館·情報서비스의 組織化에 關聯된 테에마(Thema)가 올려져 있다. 다음의 第5회는 구아라룸플에서 開催되었다. 여기에서는 公共圖書館 및 學校圖書館 및 學校圖書館의 서서비스라는 從來 地域·各國에서 等 閱視하였던 分野가 테에마로서 上程되었다. 過去 10年間 CONSAL은 이 地域이 지닌 地理的인 複雜性 때문에 試圖해 보지 못하였던 相互의 接觸과 意見交換의 chances를 地域圖書館人에 주었고, 또 東南아시아의 圖書館界에서 當面하고 있는 問題의 解決에 有意義한 協力을 가져올 수 있는 對話場을 만들게 되었다. 過去의 會議에서 提案된 것 중에서는 아직 實施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多少 있으나 적어도 거기에 나타난 理念이나 計劃은 서서히 地域의 圖書館組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東南아시아諸國의 사이에는 當然 各己 思考, 社會構造, 政治, 慣習, 및 傳統 등의 面에서 根本的인 相異點이 있어 地域全體의 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希望이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CONSAL이나 NLDC-SEA의 結成에서 經驗한 바와 같이 地域的인 協力體制의 創設에 서로 連繫될 때, 그 相異點은 차츰 霧敎되어 地域의 圖書館서비스에 대한 將來의 모습이라는 共通의 理念 속에 吸收되리라 推測이 된다.

(3) 유럽에 있어서의 圖書館計劃

유럽 各國에 대한 圖書館네트워크 및 協力問題를 正確하게 把握하자면 이 地域의 國立圖書館과 情報計劃에 대한 活動을 兼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發展의 動向은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 國際圖書館協會聯盟)의 UPA(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國際的出版物入手利用) 計劃, UB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國際書誌調整)의 觀點에서 대단히 重要한 問題이다. 이 計劃들의 背景은 地方 혹은 國家單位에서 資料提供을 完全하게 自給한다는 생각은 이미 現實的이 못된다는 認識이다. 또 새로운 出版物의 發行을 確認하고, 記錄하고 接近을 確實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은 이 두 計劃의 達成을 위하

여는 國際協력이 必要하다.

UBC의 프로그램은 國際的으로 迅速하게 資料를 入手하여 利用함을 可能케 하기 위한 書誌情報의 調整 交換의 世界的 規模의 시스템이다. 거기에는 國際的으로 標準화된 基本的·書誌的인 記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에서는 構成된 各國의 書誌的인 記錄이 國際的인 레벨로 綜合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UAP의 프로그램에서는 各國에서 自國의 出版物을 모두 蒐集하여 다른 나라들이 必要로 할 때에는 그 出版物을 提供할 수 있는 體制的 形成이 要求되어진다. 결국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資料가 언제 어디서 出版되더라도 個個의 目的을 위하여 利用可能케 하는데 있다. 이 경우에 原資料 또는 複寫資料로 提供하게 된다.

UAP가 實際的으로 運營되기에는 國家레벨, 地域레벨 그리고 國際的인 레벨의 3段階가 必要하다.

UBC의 경우는 周到하게 準備된 優秀한 各國에서의 全國的인 圖書館情報시스템의 存在가 그것을 達成하기 위한 前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國際的인 情報시스템과 統合되어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國家的인 레벨에서 본 경우, UBC의 概念은 書誌的인 記錄의 範圍, 政策 및 處理에 影響을 주며 國家的인 書誌作成業務에 關聯된 메카니즘(Mechanism)과 諸機關에도 影響을 주며 最終的으로는 이러한 면에서 重要的 役割을 遂行하는 國立圖書館에도 影響을 주게 된다.

UPA 프로그램도 또한 重要的 基盤으로서 指導力이라는 側面에서 國立圖書館에 크게 關聯되고 있다.

國立圖書館으로서 緊急히 遂行하여야 할 것을 “키르케가아르(Kir Kegaard, P.) IFLA會長の 示唆”³¹⁾한 바에 의하면,

a. 國內的으로나 他國에 對하여도 모든 나라의 出版物을 入手할 수 있도록 그 方法을 確立할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① 最近에 出刊된 그 나라의 刊行物을 當該 國立圖書館이 蒐集하여 保存할 것.

② 옛 印刷物의 入手를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國立圖書館과 다른 主要한 圖書館이 協力할 것.

31) Internation Symposium on National Planning for Library Service Network (Nov. 28-30, 1978, at National Diet Library Tokgo 1980), Lecture 3.

③ 複寫機의 利用과 옛 時代의 貴重書의 貸出카피를 作成하는 複寫計劃.

b. 國內에서의 相互貸借要求에 應하게 함을 可能토록하게 하기 위하여,

① 中央콜렉션(Collection) 또는 協同資料蒐集計劃, 혹은. 이에 合當한 方法에 의하여 資料蒐集

② 다른 主要한 圖書館資料에의 接近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綜合目錄計劃

③ 國內 또는 國際의인 相互貸借·交換을 위한 센터의 設立

UAP는 國立圖書館外에 즉 全國圖書館센터나 圖書館協力體制, 綜合目錄의 設置, 納本의 法制化, 資料複寫, 相互貸借시스템, 資料交換과 著作權 등 여러가지 것에 關係가 있다. 그리고 UAP의 條件으로서 重要한 것은 各國이 自國의 出版物을 供給하는 것이며 將來에 걸친 蒐集狀況을 改善하는 것이다. 또 UBC와 UAP는 相互補完의 關係이며 IFLA에서는 1978年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에서 이 UAP를 主要한 테에마(Thema)로 하여 會議를 가졌으나 이것은 UAP가 UBC에 對하여 第2의 補完的인 것으로서 認容되어진 것을 意味한다.

UBC는 이미 NATIS (National Information System 全國情報 시스템) 計劃에 包含시키고 있다. UBC의 中心的인 課題는 1977年 파리에서 開催된 全國書誌國際會議에서 討議되었다. 이것은 유네스코와 IFLA의 UBC國際事務局의 共同主催였으나 다음 事項들이 討議되었다.

a. 全國書誌記錄의 範圍, 內容, 形式에 對한 基準의 設定과 實際.

b. 冊子體 全國書誌의 作成, 編成, 出版頻度에 대한 指針의 設定.

c. 手作業 또는 機械的 方法으로 書誌的인 調整을 達成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를 支援하기 위한 資金의 分擔方法

이 會議는 全國書誌記錄의 內容, 形式, 具體化를 위한 最低基準에의 到達과 그 國際交換에 대하여 合意가 되었다는 意味로서 成功하였다고 評하고 있다. 以上으로 UAP와 UBC에 대한 一般的인 事實을

分析해 보았다.

그런데 文獻供給의 또 한 方法은 온라인·시스템(Online System)에 의한 利用者의 需要에 대한 充足問題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UAP의 새로운 次元의 일이며 機械화된 情報서어비스와 文獻準備 및 書誌的인 레퍼런스(Reference)의 相互連繫를 圖謀하므로써 充分하게 圖書館資源을 提供하는 것이 새로운 要求에 對應해 가지 위한 必要條件이 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UBC와 UAP의 사이에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다음은 유럽의 情報問題로서 EURONET의 抱卵에 期待하고 있는 段階에 있다. 이것은 이미 存在하고 있는 大規模的인 情報의 轉換利用을 可能하게 하는 것으로 現在 開發中에 있다.

이 유럽·도큐멘테이션 및 情報네트워크(The European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Network)은 情報, 특히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의 一般의 利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 CIDST(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科學技術情報·도큐멘테이션委員會)에 의하여 企劃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1979年 여름부터 提供하기로 되어 있으며 非中央集中的인 社會的인 시스템이다. 또 方針으로서는 될 수 있는데로 많은 情報 도큐멘테이션·센터를 包含하는 것이며 EURONET은 2次的인 情報에서 얻어진 즉 書誌의 情報에 대한 接近을 대단히 容易하게 하는데 期待하고 있다. 그리고 UAP에 關聯하여 重要한 것은 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따라 이 EURONET의 온라인 情報施設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研究되어 보다 좋은 情報提供서어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英國의 圖書館 및 情報活動에 대한 最近의 動向은 世界的으로 많은 圖書館專門家로 하여금 注目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全國의 圖書館·情報네트워크의 開發이 成功裡에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大英國書館(British Library)은 그 指導的인 役割을 遂行하고 圖書館서어비스·情報서어비스의 發展에 대하여 廣範한 責任을 지고 있다. 大英國書館은 이러한 面에서의 援助 및 勸告를 하게 되어 있고, 또 著作權이 있는 出版物의 國家的인 保存機能의 役割도 擔當하고 있다. 다시 全國書誌의 編纂에 關한 協力機關인 有名할 中央貸出機構를 通하여 相

互貸借시스템을 支援하고 있다. 그리고 利用者教育이나 圖書館·情報科學에 있어서의 大規模한 調查計劃에도 關與하고 있다.

다음은 書誌分野의 發展으로서 BLAISE (British Library Automated Information Service 英國圖書館自動化情報서비스) 計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MEDLARS나 다른 여러가지 파일(file), 혹은 英國의 最近의 것이나, 以前의 것, 美國議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 LC)의 機械可讀目錄(Machine Readable Catalog MARC)과 일에 대한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計劃되어 있다.

이와같이 하여 大英圖書館은 情報서비스分野에서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으나 地域 혹은 地方의 레벨에서의 價値있는 計劃도 無視할 수 없다. 相互貸借의 면에서도 地域的인 相互貸借네트워크가 있어 9개의 地域圖書館시스템이 50萬件的 要求를 받아 處理하고 있다. 全國레벨에서의 計劃으로는 ISBN를 使用하여 코오드(Code)화된 地方圖書館의 藏書를 記錄하여 컴퓨터檢索하는 協力業務도 實行하고 있다. 英國의 相互貸借制度는 이미 상당한 發達을 이루어 他에 模範이 되고 있으나 다시 繼續하여 研究되고 再檢討가 加해지고 있다. 이 問題에 대하여 全國的 또는 地域的인 見地에서의 檢討를 위하여 1975年 12월에 地域圖書館協力에 關한 全國委員會(National Committee on Regional Library Cooperation)이 設置되어 그 作業部會가 相互貸借의 將來에 對한 檢討를 持續하고 있다.

西獨의 圖書館시스템은 그 構造的·組織的인 見地로 보아 英國의 圖書館事情과는 많은 差異가 있다. 西獨의 경우는 非中央集中化, 地域分散化的인 圖書館政策을 취하여 地域네트워크간의 協力에 의하여 시스템과 連結된 形態이다. 이 시스템活動의 中心이 되어 있는 것은 8개의 地域綜合目錄으로 여기에 많은 專門的인 綜合目錄이나 冊子體의 全國·地域·地方의 雜誌綜合目錄을 併用하여 使用하고 있다. 물론 綜合화된 全國綜合目錄의 必要性도 檢討되고 있으나 아직은 超地域的인 目錄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 4개의 中央專門圖書館이 特殊地域에 文獻을 供給하기 위하여 相互貸借의 役割도 하고 있다.

西獨은 外國文獻의 蒐集을 위한 共同收書計劃이 實行되고 있으나 이것은 收書를 위한 主題專門別分擔計劃(Sondersammelgeliets-Programm)이라 하여 獨逸學術協議會에 의하여 創設·後援되고 있다. 美

國의 파아밍턴·플렌과 類似한 것으로 全主題分野를 包含하고 있다. 이것은 外國에서 出版되는 모든 重要한 學術文獻을 적어도 1冊을 一般 調查圖書館의 어딘가 1個所에서 入手할 수 있는 形式의 것이다. 이 主題專門別共同收書計劃은 獨逸學術協議會가 發行한 資料(German Research Association: Supra-regional Literature Provision for Science and Research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에 詳細하게 記述되어 있다.

興味있는 것은 現狀에 對한 比較·考察한 것으로 大英圖書館貸出局(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의 構造와 類似한 全國規模의 中央貸出機構의 形態를 提案한 點이다.

여기 數年間に 相互貸借에 관한 改善計劃이 進陟되고 있으나 마이 크로피시(Microfiche) 形體로 入手·利用시킬 目的으로 2個의 地域 綜合目錄을 필립化하는 것으로 集中化하는 計劃이 記述되어 있다. 또 綜合目錄을 連結시키기 위하여 컴퓨터를 利用한 ISBN記錄을 編纂할 可能性과 貸出表의 迅速한 送達을 위한 獨逸各圖書館에서의 電送印刷機의 導入에 대하여 試圖하고 있다. 2, 3의 計劃은 數館의 藏書を 함께하여 相互貸出시스템으로 利用하겠끔 컴퓨터化 目錄의 開發에 集中하고 있다.

그리고 西獨의 綜合的인 圖書館네트워크의 概要를 同研究팀에 의하여 考案되어 「Library Plan '73」으로 發表되었다. 이 計劃은 小公共圖書館에서 大調查圖書館에 이르기까지의 關係에 대하여 西獨圖書館시스템의 相互關係를 하나의 概念으로 試圖한 것이다. 이 計劃의 基本的인 原則으로서 教育計劃은 圖書館 및 情報서비스와 密接하게 結付된 最初의 效果的인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또 注目되는 것은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責任을 分擔하는 圖書館네트워크에 의해서만 서어비스에 대한 要望에 對應할 수 있다는 事實을 記述하고 있다.

또한 이 計劃에 의하면 여러가지 文獻 및 情報에 대한 要求에는 機能을 4段階로 나누어 對應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第1에서 第3레벨의 圖書館은 地域 그리고 冊레벨에서 要求를 滿足시켜주는 것으로 어느 높은 레벨의 쪽이 낮은 레벨에서 나오는 서어비스를 補完하게 되어 있다. 第4의 레벨의 機能을 가진 圖書館은 文獻情報의 超地域的인 提供의 責任을 가지며 그리고 거기에서 專門的인 調查報告를

포함한 文獻의 積極的인 利用을 可能토록 하게 되어 있다.

圖書館네트워크의 面에서는 이 計劃은 學校圖書館, 大學·技術專門學校, 各種의 專門圖書館도 包括的으로 생각하고 있다. 中央參考調查서서비스의 發達과 一體가 되어 있는 通信技術의 改善은 相互貸出體制的 改善과 情報·레퍼런스·서서비스(Reference Service)의 改良을 推進함이라고 判斷된다. 결국 이 計劃은 UBC 및 UAP의 觀點에서 보면 그 나라의 圖書館과 圖書館資源에 대한 一般의 接近을 增大시키도록 指向하는 大規模 施策으로서 期待된다고 하겠다.

情報 및 文獻의 促進을 위한 西獨政府의 計劃은 1974年 12月에 內閣에 의하여 承認되어 1975年 여름에 公報되었으나 이것은 別途의 大規模한 計劃이다. 이 提案에서는 各主題에 걸친 幅 넓은 範圍로 大規模의 文獻의 促進·서서비스를 指向하는 計劃이 包含되고 있고 또 文獻을 提供하는 경우의 여러가지 文獻의 促進·서서비스의 重要한 問題를 明白하게 하였다.

以上으로 유럽의 圖書館의 全國計劃(National Plan)이나 情報시스템, 協力問題에 대한 最近의 傾向에 대하여 概括的으로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UBC나 UAP와 같은 國際的인 業績은 健全한 全國計劃을 基礎로 하여금 처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한편 圖書館이나 情報시스템 및 서서비스의 全國計劃을 成功시키는 데는 全國計劃立案者나 政策立案者가 國際的인 諸問題에 대하여 考慮할 點이라 하겠다.

相互貸借에 關聯하여는 全國的인 相互貸借시스템과 國際的인 貸借시스템은 不可分의 것이며 國際的인 貸借시스템이 效果的으로 잘 되느냐 안되느냐는 全國貸借시스템이 잘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렸다. 한편 國際的인 貸借시스템에의 配慮없이 全國貸借시스템을 企劃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圖書館奉仕의 一體化를 위한 土着化 方案

가. 一體化의 制度化

圖書館一體化의 協力組織에 對하여는 先進國의 先行을 例示 및 分析

한 바와같이 그 類型에는 館種別, 地域別, 專門別등 多樣하나 各己 長短點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點만을 調和있게 살려 協力活動을 積極化, 效率化할 수 있는 組織體制로 整備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一部 組織化 形態가 있기는 하다. 즉 專門別로는 醫學圖書館의 協力組織이 있고 館種別로는 延世·梨花·西江大學圖書館의 YES協力組織 또는 館種을 超越한 國內 大圖書館들이 參與하고 있는 國立中央圖書館 主導下의 外國圖書에 대한 綜合目錄計劃이나 相互貸借 協定등이 있으나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刊行되는 外國圖書에 대한 綜合目錄의 編纂事業 以外에는 實質的인 成果가 없다. 이와같은 協力活動에 대한 眞實된 便宜를 넓혀 圖書館活動의 質的, 量的인 向上을 위한 全國的, 地域別 및 專門的인 協力體制로 再整備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產業의 發展과 交通의 現代化로 因한 全國土의 1日生活圈領域에서 近代圖書館의 性格이 全分野를 網羅한 一體化된 綜合圖書館의 必要性이 짙어가는 現時點에서 圖書館協力活動을 圓滑하게 推進할 수 있는 協力組織으로서 中央과 地域의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할 體制의 整備가 現行圖書館法의 改正에 의한 法的인 保障과 圖書館行政 및 政策的인 支援과 더불어 緊要한 課題이다.

여기에서 重要한 것은 圖書館協力の 中央센터인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內容에 대한 確立이다. 이것은 圖書館協力組織의 中樞機關으로서 相對的인 決定이나 諒解 및 서로 氣脈이 相通되어야 하겠으나 일단 國立中央圖書館이 協力の 中央本部로서의 役割에 對應할 次勢의 確立이라는 立場에서 그 業務內容을 LC(美國議會圖書館), 유네스코의 “네이셔널·라이브러리(National Libraries)” 라는 심포지움에서 議論된 바를 參考하고 筆者의 見解를 加味하므로써 그 合理的인 內容을 整理·抽出하여 提示하고자 한다.

(1) 一般的인 役割

- a. 韓國圖書館의 리더쉽을 쥐고
- b. 國家에서 生産되는 印刷·文獻文化財의 網羅的인 蒐集保存·傳承
- c. 外國文獻의 積極的인 蒐集

- d. 圖書館技術에 관한 研究所 役割, 이의 開發・統一・向上을 圖謀
 - e. 國家書誌・專門書誌・索引의 作成・刊行의 中央書誌센터 役割
 - f. 國家를 代表한 國際書誌統整에의 參與
- (2) 協力的인 役割
- a. 圖書館協力活動의 連絡・調整센터 役割 및 이의 積極的인 推進
 - b. 共同目錄作業센터 役割 및 印刷카드의 作成・頒布
 - c. 全國綜合目錄의 카드體, 冊子體에 대한 作成・刊行 維持
 - d. 全國的인 圖書館貸借組織에의 參加資料의 複寫提供
 - e. 國家書誌센터로서의 積極的 參考奉仕
 - f. 國家를 代表한 資料의 國內・國際文換센터 役割
 - g. 圖書館業務의 自動化・標準化의 中央센터 役割

以上에서 列擧한 바와같이 國家의 代表圖書館 또는 協力的 中央機關으로서 諸役割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圖書館相互協力體制는 整備될 것이므로 國立中央圖書館의 補強과 더불어 地域圖書館의 育成이 圖書館發展에 있어서의 先決問題이다.

나. 一體化活動의 內容

(1) 專門主題別 分擔蒐集

圖書館의 協力에 의하여 實現되는 相互貸借・綜合目錄과 關聯된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重要한 課題는 圖書館의 性格에 따른 資料(특히 外國文獻)에 대한 專門主題別 資料를 分擔蒐集하는 일이다. 그것은 歐美를 비롯한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有效하게 實行하고 있는 方法으로 이 制度는 相互貸借의 實施를 前提로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一般的으로 圖書費가 貧困한 狀態에서는 더욱 이의 實施는 要望된다. 말할 것도 없이 韓國의 圖書館에서는 資料蒐集에 있어서 어떠한 圖書館의 獨自的 또 共同的 方針・性格의 協력이 없이 무턱대고 圖書館에 주어진 豫算範圍에서 모든 分野의 資料를 蒐集하는 傾向이 있어 圖書館의 收書가 거의 類似하며 何等의 特色이 없을

뿐 아니라 있을만한 一般的인 圖書는 여러 圖書館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學術·技術的으로 有用한 圖書는 高價이기도 하지만 豫算關係 또는 安逸한 資料의 選擇手段 등으로 圖書館에서 蒐集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研究調査者의 探訪에 困難을 주는 結果가 現在 韓國圖書館의 實態이다. 이로 因하여 「韓國의 圖書館은 어느 館에도 必要한 資料는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批評을 받게 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며 또한 社會大衆으로부터도 圖書館에는 有用한 資料가 없다고 不信感을 받고 있는 實情이기도 하다.

그것을 全國的인 規模로 實施하자면 國立中央, 大學 및 學術研究圖書館등이 協力하여 實施하면 될 것이며 또 地域的인 實施 역시, 地域代表(道立·指定市立) 大學 및 學術研究圖書館등이 集中되어 있는 文化的 地域으로서 首都圈인 서울地區, 嶺西·嶺東地方의 春川地區, 湖西地方의 大田地區·淸州地區, 湖南地方의 全州地區·光州地區, 嶺南地方의 大邱地區, 釜山地區 및 濟州地方의 濟州地區등 各己 地域內의 圖書館이 協力하여 分擔蒐集을 責任진다고 하면 學術文獻이 比較的 潤澤하게 그 地域에 集中되고 相互利用의 提供이 이루어진다면 利用者에게 큰 便益을 안겨주게 될 뿐 아니라 이로 因한 學問의 發達 및 研究成果도 크게 伸長할 것이며 아울러 地域文化·國家文化의 暢達에 裨益하게 되는 點에 極大化를 促進할 것이다.

(2) 書誌의 開發

相互貸借의 前提로서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이 圖書館資料에 대한 所在을 알릴 수 있는 全國綜合目錄의 編纂·刊行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1970年度부터 新收入 外國圖書에 대하여 綜合目錄編纂을 國立中央圖書館에서 着手하여, 1979年度分까지 10個年分(10冊)을 刊行하고 있으나 이에 參加하여 協助하고 있는 圖書館은 極小數의 一部圖書館 뿐으로 全國的인 規模가 아니기 때문에 現段階로서는 크게 期待할 수 없으며 오로지 實驗期(너무 길기는 하지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本事業에 全國的인 參加와 既藏資料에 대한 週及的인 綜合目錄의 編纂을 위한 各級圖書館의 協助와 文化的인 國家事業으로 昇化하여 國庫補助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專門別, 地域別 綜合目錄의 編纂에도 銳意 檢討되어야 하며 아울러 一館藏書目錄(冊子目錄)의 刊行頒布에도 相互協力하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즉 綜合目錄外에 各館에서 刊行하는 一館의 藏書目錄도 文獻情報資料를 提供한다는 立場에서 有効한 것으로 이를 各圖書館이 刊行頒布하는데 努力할 必要가 있으며 輕視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圖書館資源의 廣域開放

圖書館의 第一義的인 使命이라고 할 수 있는 文化서비스의 強化를 위하여 圖書館間의 協力體制確立이 先決問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圖書館資源의 廣域開放·廣域서비스로 飛躍시키는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于先 國立·公共圖書館에서 徵收하고 있는 入館料를 없애야 하며 또 館內利用 위주에서 館外利用 위주로 轉換하는 資料利用·提供의 方法으로 發展的인 變化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圖書館 資料의 相互貸借을 主軸으로 한 奉仕體制가 確立되어야 한다.

相互貸借問題가 韓國圖書館界에서 話題에 오른 것은 무척 오래된 일이나 公式的인 發議는 不過 10餘年,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16個館間의 協約에 依한 相互貸借組織이³²⁾ 되어 있으나 그 運用의 實이 거의 없으며 또 “醫學圖書館間”의 協約에 依한 相互貸借組織, “YES大學(延世·梨花·西江大學)間”³³⁾ 그리고 地域別 圖書館間의 非公式的인 貸借 등 極히 消極的인 實施外에 全國的인 廣域貸借組織은 아직 없다.

(4) 圖書館業務의 標準化 및 省力化

全國圖書館組織網(分館網을 包含)을 確立한다면 經費에서 整理의 分散化는 不經濟的이며 더욱 人力 및 技術面에서도 不可能하다.

그리고 韓國의 경우 行政管轄이 다른 道·特別市·直轄市立, 市·區·郡立 사이의 單獨管轄體制에서는 잘 協調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障害로서 管轄이 다르다든가 所屬의 一貫性이 없다든가 등으로 困難한 點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地域的인 協力體制的 確立으로 地域센터 圖書館에서 集中整理하는 整理의 合理化·標準化를 實現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32) 윤영대 : 의과학도서관협동체물 중심으로, 도서관, Vol. 26, No. 11, 1971, pp. 14~15.

33) 윤구호 :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서강대학교의 도서관 상호 협조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Vol. 26, No. 11, 1971, pp. 14~15.

고 展望한다. 그 方法으로,

- a.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印刷카아드를 製作・販布할 것.
- b. 政策・組織(法的保障)・管理・財政・施設・人事등의 審議機關으로 委員會를 構成할 것.
- c. 道立・指定市立(地域協力센터)이 整理서어비스센터가 될 것.
- d. 全國書誌와 地域綜合目錄의 性格을 明確하게 할 것.
- e. 道立 指定市立은 全國書誌・專門書誌의 作成에도 參與할 것.
- f. 센터館은 반드시 國立中央圖書館 印刷카아드의 拱托者(Depository)가 될 것.
- g. 센터館은 언제든지 資料를 選擇할 수 있도록 圖書展示코너를 設置할 것.
- h. 郷土資料・地方行政資料에 대하여 特別히 配慮할 것.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整理의 標準化 一環으로 印刷카아드 問題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및 公共圖書館部會(韓國圖書館協會의)등에서 많이 論議나 試圖는 되었으나 아직 그 實現은 보지 못하였다. 이의 推進은 國立中央圖書館職制令(大統領令 第4384號) 第6條 第3號에 의하여 印刷카아드 製作 및 配布에 대한 것을 國立中央圖書館에 負荷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은 이의 實現을 위하여 積極努力하여야 되겠다.

다. 國立中央圖書館의 發展的 役割

文化國家建設의 基礎가 되는 國家의 代表圖書館으로서의 性格을 지닌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根本理念上 行政的 權力이나 그에 따른 命令에 의하여 指導的 立場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國家의 中央圖書館으로서의 廣範한 業務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國內의 各圖書館에 提供하므로써 스스로 指導的인 地位를 確立해 가는데 있다. 近代的인 國立中央圖書館의 使命은 그 業務를 통하여 國內의 各種 圖書館이 그 自體의 業務를 遂行하는데 便利하도록 積極的인 援助協力を 提供하는데 있다. 이 理念이 圖書館法 第17條 第5號의 援助規定에 明示되어 있다.

圖書館發展을 위하여 關係圖書館人의 獻身的인 努力에 의하여 1963年「圖書館法」이 制定되었으나 그間 時宜에 맞게끔 發展的인 改正한번 없이 圖書館에 對한 一般的인 認識의 缺如에서 또 여러가지 財政事情에서 이 立法의 目的을 위한 成果, 機能이 發揮되지 못하고 現在에 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 各種圖書館의 基盤이 充分히 確立·整備되지 않은 狀態로 現在에 이르러 各館種의 本來的인 機能이 제대로 發揮되지 못하고 있다는 現象이 波及하여 國立中央圖書館도 國家의 中央館으로서 充分히 機能을 살려가지 못하는 脆弱性이 繼續하여 存續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圖書館의 一般的인 事情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은 圖書館을 代表하여 強力한 指導力의 發揮와 좀더 積極的인 援助를 實行할 수 있는 基盤을 쌓는 問題에 對處하여야 되겠다.

最近 一國의 情報量의 多寡가 그 나라의 運命을 左右한다는 觀點에서 國立圖書館資源(National Library Resources)에 대한 形成이 主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點이 많다고 하겠다. 國立中央圖書館의 文獻資料 充實을 위하여 國內刊行物에 대하여는 世界에 類例가 흔하지 않은 補償金을 支拂하고 있는 法定納本制度를 採用하고 있다. 그 成果는 文獻情報(月刊), 大韓民國出版物總目錄(年刊)에 收錄하여 刊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印刷카아드, 코리아·마아크(KOREA MARC)에 結集시켜야 됴에도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速히 開拓하여야 되겠다. 또 納本制度에 있어서도 補償金 支拂을 無償納本으로 하여 文化財의 永久保存을 위한 自然스러운 國民意識의 鼓吹와 音盤, 필름, 테이프, 마이크로資料등의 納本도 實施되게끔 圖書館法의 發展的인 改正이 必要하다. 여기에 附隨하여 外國文獻의 蒐集이 뒤따라야 되겠다.

또 한가지 資料源의 充實에 대하여 考慮할 點은 近來 차츰 增加해 가고 있는 機械可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問題이다. 이를 위하여 電子計算機에 의한 圖書館業務의 自動化가 急히 이뤄져야 되겠다. 美國의 情報科學協會(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가 1977年에서 發表한 바에 의하면 1977年의 時點에서 世界에 있는 機械可讀의 데이터·베이스의 數는 362種 그 收錄記錄數는 7,100萬件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營利的, 非營利的인 것이 合算되어 있으나 國立中央圖書館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最大이면서 最終의 文獻情報의 皎

着點이 위하여는 적어도 外國의 國家書誌類(National Bibliographies)의 테이프는 蒐集하여 活用할 수 있게 하여야 되겠다.

또 이에 關聯된 것으로 各大學·研究機關과 國立中央圖書館이 連繫된 情報서비스 즉 텔렉스(Telcx)의 活用과 온·라인의 設置로 國內所藏의 圖書館資源과 데이터·베이스의 活用策을 講究하여야 되겠다. 將來에 向하는 國立中央圖書館의 課題는 國立中央圖書館 自身이 開發한 코리어·마이크와 이를 代表하는 情報데이터를 온·라인에 의하여 一般에게 提供하는데 까지 이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外部의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連結시켜 國立中央圖書館 自身の 參考·調査業務에 끌어들이는 問題 또한 그 外部의 데이터·베이스에 包含된 情報의 實體인 原資料(Original)를 어느 程度까지 蒐集할 것인가에 대한 政策的인 配慮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모든 原資料를 網羅적으로 蒐集하기에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으로 자연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의한 分擔蒐集으로 이에 對備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 自體의 資料充實에 努力함은 물론, 文獻資料를 中心으로 한 國內의 書誌情報를 把握하기 위한 協力網의 整備는 早急히 檢討되어야 하겠다.

다음은 國立中央圖書館의 國際協力は 韓國을 代表하는 圖書館으로서 具體적으로 圖書館의 國際的인 協力の 窓口役割을 擔當하는데 있다. 現在 國際協力에 있어서 實踐에 옮겨지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가 指定하는 國際文換센터를 이어 받고 있으며 政府刊行物의 包括的 또는 選擇的인 交換, 主要圖書館과의 民間出版物의 交換을 實施하는 以外에 國內의 諸大學이나 調查研究機關 및 學協會를 위한 委託交換의 業務등이다. 그러나 아직 開拓해야 할 分野는 유네스코에서 企劃하고 있는 國際的인 書誌業務, 國際逐次刊行物데이터·시스템(ISDS)의 韓國센터의 役割,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의 國際書誌調整(UBC)計劃에 대한 協力등이 있으며, 또 特定國과의 協力事業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美國議會圖書館에서 推進하고 있는 全美蒐集目錄計劃(NPAC)의 分擔目錄(Shared Cataloging)의 事業등 많은 分野에 努力할 素地가 있다.

그리고 國內에서의 協力組織은 國際的인 協力の 基盤이 되는 것이다. 國際的인 協力에 있어서 當然 아시아地域에 對한 協力으로 中國·日本을 위시한 CONSAL(Congress of Southeast Asian Librarians)

에의 參加·協力에 對하여도 國立中央圖書館은 留意할 立場이라 하겠다.

4. 結 論

圖書館業務를 직접 다루면서 職務觀察을 通하고 海外視察의 機會에 얻은 見聞 및 學問을 通하여 理論과 實務를 익힌 것을 應用하여 前術의 結果로 敍着시켜 보았다.

一般的으로 圖書館이 지나고 있는 間接的인 生産性마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投資效果가 長久한 時日을 要하는 表面上의 非經濟性이란 點에서 이러한 業務를 다루고 있는 圖書館이 政策決定者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기 어려웠고, 한편 圖書館이 지나친 公益性 때문에 同業者(Pri-vate Interest)를 通한 壓力을 行使하여 政策方向을 轉擴시킬 수 있었던 勢力이 없었으며, 다만 우리나라 官僚制의 지나친 中央集權化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決定權限이 없는 下位階層에서 被動的인 論議가 되었음이 우리나라 圖書館運動의 過程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反省의 側面에서 볼 때, 韓國의 圖書館活動은 從來의 閉鎖的인 館內閱覽重點主義나 入館料 徵收에서 벗어나 利用者를 中心으로 한 利用者에게 負擔이 없이 密着되게끔 館外奉仕重點主義로 利用者의 接近에 防害가 되는 要素를 除去하는 方向으로 轉換해갈 時期가 바로 現時點이 아닌가 한다. 美·英의 圖書館事情이나 기타 앞서 있는 나라들의 事情을 들을 때, 우리는 劣等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圖書館이 社會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存在임을 圖書館의 史的인 背景을 더듬어 보지 않고라도 明確한 事實인데 圖書館發展을 沮害하는 要素를 拔本하여 刷新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氣分은 圖書館人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은 圖書館 內部 뿐인 問題는 아니다. 보다 큰 社會問題가 介在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 地域의 사람들이나 社會에서 圖書館을 利用하는 意識이 豊滿해지지 않고는 讀書活動의 隆盛은 期待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逆으로 생각하면 讀書意慾이 隆盛한 社會일수록 優秀한 圖書館의 建立을 促求하게 되기 때문이다.

圖書館政策面에서 1968年度에 文敎部에서 立案하여 實施하고 있는

“年次別 公共圖書館擴充計劃(1968~1981)”이나 이의 補完計劃(1979年度 文教部 마련) 등의 圖書館建立을 위한 政策은 未洽하나마 있으나 圖書館資源의 汎國家的인 自由로운 活用을 위한 圖書館의 協力組織網의 形成 및 圖書館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한 運用에 必要한 國家計劃이나 法的인 保障이 없는 點에 대하여는 時急히 是正할 必要가 있겠다.

國立中央圖書館이 우리나라 唯一의 代表圖書館인 以上 그 整備·充實化가 되지 않고는 圖書館協力の 네트워크의 形成이나 想定되는 各種計劃에 어떻게 參與하고, 어떠한 役割을 할 것인가 確然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國立中央圖書館運營의 根本理念은 法律에 明記된 各種 圖書館業務를 忠實하게 그리고 積極的으로 展開하므로써 스스로 우리나라 圖書館의 核心的인 存在를 確立하는데 있으므로 圖書館法 自體에서 이미 우리나라 圖書館協力網의 中心임을 法的으로 明文化된 것으로 擴大解釋할 수 있다.

또 圖書館法 第17條 第5號에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 및 援助”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他圖書館이란 館種을 가릴 것 없이 複數以上 全圖書館을 指稱한 것이며 圖書館業務의 內容에는 當然 圖書館의 協力組織活動도 內包된 것으로 보아 國立中央圖書館이 圖書館協力的 네트워크의 形成에 參與하여 그 네트워크 속에서의 代表圖書館으로서의 役割을 設定하고 그 組織의 育成에 援助協力を 行事하는 것이 이 條文의 趣旨이다.

換言하면 各館種의 圖書館이 또 館種을 超越한 圖書館이 全國的 地域的 또는 分野別 專門別로 協力的 네트워크를 構想하여 나쇼날·플랜(National Plan)을 策定할 때, 이것을 國立中央圖書館에 依存하는 他山之石이 아니고 各各의 圖書館 自身의 問題로서 이것을 把握하고 構想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은 이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그 構想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研究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役割에 비추어 適切한 援助·協力を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情報化時代를 맞이한 오늘날 如何한 圖書館도 그 館 自體만으로는 全資料를 所持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적어도 資料面에서의 相互協力は 避할 수 없다. 大學·專門圖書館의 分野에서는 資料蒐集의 分擔, 資料의 相互利用등을 中心으로 全國的·地域적으로 活潑한 協力的 實例도 있

으며 또 한편 同一館種 혹은 館種을 超越한 協力이 一部 館員들의 自覺과 努力으로 成果를 거두어가고 있으나 全體의으로 보면 아직 未發達된 部分이 많이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이것은 根本的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을 包含한 各館種의 圖書館이 各己 갖고 있는 本來의 機能을 發揮할 基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다져지고 있지 않은데 原因이 있다고 判斷된다. 各館長을 위시하여 圖書館職員의 創意와 눈물겨운 努力에도 不拘하고 學校圖書館, 中小公共圖書館은 말할 것도 없이 大公共圖書館이나 國立中央圖書館조차 本來의인 機能과 役割을 十分 發揮를 못하고 있다. 이와 類似한 問題는 大學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도 例外는 아니다.

이러한 實情을 改善하기 위하여는 國家나 地方公共團體가 좀더 圖書館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여 財政的인 援助를 大幅 增大시킴이 必要하다. 圖書館에 대하여 “좀더 豫算을, 좀더 定員을” 이것이 우리들 關係者의 마음속의 부르짖음이며, 이것이 實現되면 低迷한 우리나라의 圖書館 그리고 圖書館間的 協力이 急速히 伸長되리라 確信한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는 그 前提條件으로 圖書館에 職場을 갖고 있는 各人이 以上の 問題를 自己·自身의 問題로서 誠意와 熱을 다 할 必要가 있다.

協力の 네트워크나 全國計劃(National Plan)에 대하여 요즈음 說往說來하고 있으나 이것은 圖書館人 自身의 問題로서 具體的으로 檢討하고 提起할 일이다. 이것을 政府나 國立中央圖書館에서 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다. 確實히 圖書館發展을 위하여 政府는 무엇을 하였는가 단지 훌륭한 圖書館의 建物을 建設하는데는 대단한 意欲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단 建物이 完成되면 유감스럽게도 그 機能的인 運營을 위한 必要한 經費의 充當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은 嚴然한 事實이다. 이것은 當局에 圖書館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을 위한 PR의 不足, 努力의 不足이 있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全體圖書館人의 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經濟發展·貿易伸張에 力點을 둔 國政의 탓으로 派生되는 各種의 社會的인 問題가 惹起되는 이때 圖書館이나 出版文化의 發展을 나라의 重要 施策으로 받아들이는 社會的인 氣運의 醸成이 必要하다. 이웃 나라인 日本의 超黨派的으로 結集된 圖書議員聯盟의 誕生을 보았다함은 우리에게 感銘을 준다.

美國에 있어서는 圖書館과 인퍼메이션·사이언스(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振興을 위하여 1981年 가을을 目標로 한 白堊館會議(White House Conference)를 開催하려고 現在 州段階의 豫備會議(Pre-Conference)를 開催하여 活潑한 討論이 進行中에 있다고 듣고 있다. 그 代表委員에는 圖書館關係者가 3分の1을 超過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學者·研究者나 各界의 權威者라는 것이다. 이것은 圖書館의 問題가 이미 圖書館員만으로 생각할 段階는 지나고 各界의 權威者를 包含한 國民全體가 圖書館의 問題를 議論할 段階에 이르렀음을 證明한다고 하겠다. 우리도 이와같은 圖書館運動에 대한 背景의 힘이 要求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韓國의 圖書館全體의 發展을 생각할 때, 또 여러가지 圖書館協力の 企劃을 생각할 때, 우리는 美國의 圖書館振興財團(Council on Library Resources, 以下 CLR이라 記入한다)과 같은 圖書館事業만을 目的으로 한 財團의 設立만이 解決하는데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韓國의 圖書館界가 다른 分野에 比하여 한발 더딘 事由의 하나는 圖書館 및 圖書館人이 아무리 훌륭한 抱負와 企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實行에 옮길 수 있는 財政的인 뒷받침을 獲得하기에 困難한 點에 있다.

複數의 圖書館이 共同의 目的을 갖고 資料蒐集의 分擔, 共同書庫, 레퍼런스網의 整備, 相互貸借, 綜合目錄, 機械化 등 多樣한 企劃이 圖書館人의 優秀한 頭腦에서 또 日常業務遂行上의 必要에서 主張되어도 그것을 滿足하게 實現시킬 수 있는 運營資金이나 分擔金을 捻들어낼 與件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現行 豫算制度나 會計制度에서는 極히 困難한 일이다. 이를 스타아트시킬 引力役割을 할 資金援助가 있으면 그것이 有効한 起爆劑가 되어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美國의 例를 보아도 圖書館의 發展 특히 수많은 各種 協力網의 發足時에 그 背後에는 반드시 各種團體 특히 CLR發足後는 큰 도움이 되어 協力活動이 活潑해졌음을 發見하게 된다. 大英圖書館(British Library)에서는 研究開發部가 이에 相當하는 機能을 갖고 있는 듯 한데 韓國의 圖書館發展을 위하여 또 各種 協力組織의 形成을 위하여는 이러한 財團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韓國圖書館協會나 各館種別의 圖書館團體를 中心으로 이 問題에 대하여 衆知를 모아서 檢討할 것을 提唱한다.

끝으로 圖書館이 보다 活動的으로 機能을 發揮하기 위하여는 于先 根本的인 施策이 必要하다고 보고, 이에 圖書館政策의 方向을 提示한다는 意味에서 「一體化된 圖書館組織體制의 確立에 대한 根本策」을 마련해 보았다.

韓國의 圖書館은 恒常 圖書館機能의 確立과 組織化에 있어서 그 機構·組織의 改革 및 法的 保障이 없이는 目的·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다. 그러므로 現行的 圖書館法을 補完的 改正으로 國立中央圖書館法·公共圖書館法·學校圖書館法 등으로 그 機能別 法制定이 있어야 되겠고, 이에 聯關된 社會教育法의 制定으로 相互連繫를 期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文敎部職制 事務分掌規定에서 보면 社會國際教育局은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의 指導育成 및 事務指導이고 普通教育局은 學校圖書館을, 大學教育局은 大學圖書館 그리고 產業教育局은 實業系學校를 指導監督케 하는 各級圖書館 行政·政策의 主管이 分散되고 있는 實態임에 圖書館의 體系있는 發展을 阻害시키는 큰 原因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文敎部職制를 改正하여 圖書館局을 新設하므로서 圖書館行政이나 政策의 立案·實踐을 專擔할 수 있는 機構를 마련하고 이에 의한 우리나라 圖書館組織을 相互協力的으로 統合된 全體로서의 發展을 企圖함이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現代의 圖書館資源의 範圍가 世界的으로 質·量 共히 增大一路인 現時點에서 이 龐大한 資料를 利用者에게 가장 效果的·能率的·經濟的으로 提供할 수 있는 奉仕를 위해서라도 國家全體로서의 合理的이고 一體化된 圖書館協力組織體制를 確立할 것을 提言한다. (本稿은 이택준·정병완 두분의 연구협력에 의함)

A Tentative Study on Inter-Library Cooperation

Se-ick Kim*

Today, we have often heard that information is a national resources, perhaps our most important national resources, and that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is and develop a national policy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use of information. But traditionally the library has played a rather passive role in selecting, acquiring, preserving and transferring information.

Now we have faced greater and much more diverse and more urgent demand from users and we have to cope effectively with a massive increase in volume and in cost in selecting, acquiring,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Individual libraries can no longer keep pace with the published outputs of the world.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lies in "national planning and in cooperation through inter-library cooperation and in the application of data processing to library operations."

Also at the national level lies the responsibility for total bibliographic control of the national information output and for the interfacing of this wit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for the development, adoption and maintenance of standards in all areas affecting library work;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ased on centrally created and maintained bibliographic data files, and for planning and polic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ystem.

*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Ewha Women's University.